

英 가전업12社 연합 제품리사이클 공동출자회사 출범

2005년 8월부터 시행되는 EU차원에서의 폐가전 처리지침에 대한 영국 가전업체들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영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워플(Whirlpool), 이탈리아의 캔디, 스메크와 지멘서, 보쉬사가 공동출자한 독일의 BSH사, 네덜란드의 필립스, 터키의 베코사 등 다국적 가전제품 제조업체들과 영국의 알바(Alba)사 등 총 12개사는 일단 소비자들로부터 폐기된 제품의 재활용을 전문으로 한 공동출자 회사를 출범시키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번 공동출자회사 발족에는 백색가전제품 협회인 Amdea가 조정한 것으로 업체 전체에 추가비용 부담요인을 부상한 EU지침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거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업계 공동움직임에 향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색가전제품업계의 이

런 움직임이 점차 다른 지침 적용품목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는 영국내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는 한해 약 1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자료출처 : KOTRA)

□■ 일본의 IT업체 후지제록스 재활용 시스템 구축

니혼게이지이신문은 IT업체인 후지제록스가 9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복사기, 프린터 등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약 4억 엔을 투자하여 태국에 설치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후지제록스 제품의 99.8% 정도가 재처리될 것이며,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 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곳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연간 3만대의 복사기, 40만개의 토너 카트리지 등이 처리될 것이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강철, 알루미늄, 유리 등의 63가지 재료로 제품을 분류한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은 보도했다.

□■ 유럽 재활용 업체, 원자재 부족으로 고전 중국 대량 수입으로 재활용 PET병 가격 급증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업체는 가정생활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져, 특히 가장 중요한 PET병 원자재가 없어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 일회용 캔 및 유리병 의무수거가 도입된 이후 캔 및 유리병이 PET병으로 대량 대체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들은 역설적으로 PET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일회용 캔 및 유리병 의무수거 도입 이전에는 독일에서 Duale System Deutschland (DSD)사에서 총괄적으로 플라스틱 수거를 도맡아 실행했으며, DSD사는 본사의 재활용 에이전트(DKR)를 통해 수거된 제품들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판매했다.

2002년 6만2천 톤을 직접 유럽 재활용 업체들에게 공급 판매했다.

그러나 일회용 캔 및 유리병 의무수거 도입 후 Aldi, Lidl 등의 유통업체들이 캔, 유리병 및 PET병 등을 직접 회수하게 되면서, 중국 수입상들이 이 유통업체들로부터 직접 PET병을 대량 수입하기 때문에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수입상들이 코앞에서 모든 원자재를 빼앗아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입한 PET병을 섬유산업에서 재활용하여 재킷 및 와이셔츠 등의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Multipet, Alba, Rathmann, Cleanaway 등의 유럽 소재 재활용 업체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밝히며, 재활용 생산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Multipet사는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기업들은 최근에도 플라스틱 재생가공 생산설비에 크게 투자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다. 예를 들어 Cleanaway는 Rostock에 유럽 최대의 PET병 재생가공 생산기지를 세웠다.

한편 Ascom 건설링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 유럽에서 연평균 재활용 가능한 PET병은 53만5천 톤인데, 지난해 수거된 약 45만 톤 중 2/3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또한 중국의 대량 수입은 PET병 폐기물 가격을 인상할 초래해 지난해에 2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은 품질에 따라 톤당 260 유로까지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사스 발생 등으로 인해 중국의 PET병 수요는 약간 수그러들었으나, 사스 퇴치 이후 중국 수입상의 대량 수입이 한층 증가해 유럽 재활용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씩쓸이'는 미국 재활용업체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독일 연방 재활용 원자재 및 폐기물 처리협회(BVSE)는 분석하고 있다. (자료출처 : KOTRA)

□■ 日 중부전력, 폐기물 재활용 성공 폐기 석탄재를 이용 시멘트블록 개발

일본 제3위 규모의 중부전력은 자사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다량의 석탄재를 활용하여 각종 동식물,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호안용 시멘트블록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중부전력 연구진이 개발에 결실을 거둔 것은 '다공질 시멘트블록'이라고 불리는 소재이다. 이 소재는 일반 콘크리트의 내부에 수많은 공극을 포함한 것으로 식물 및 해조류의 뿌리, 줄기 등이 공극을 통과할 수 있어 각종 동식물 및 미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다공질 시멘트블록은 자갈을 결합제로 사용해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해 내부에 공극이 생기도록 제조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다공질 시멘트블록은 결합제인 자갈 대용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고화물'을 시멘트 및 물과 혼합했다.

중부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공극을 늘리기 위한 배합 비율 및 제조 방법을 연구한 결과, 종래의 블록과 비교해 공극수가 50% 정도 많은 시멘트블록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또한 본래 수분을 잘 흡수하는 석탄재를 적극 원료로 활용해 블록의 강도도 기존 블록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다.

근래 일본에서는 환경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호안 정비시 하천의 수질 환경에 대한 보존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중부전력은 다양한 생물이 생활할 수 있는 호안용 시멘트블록으로서 금후 출시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KOTRA)

□■ 오래된 가구의 재활용

과거에는 가구가 평생 혹은 몇 대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주거양식의 변화 및 품질 등의 이유로 쉽게 쓰레기하치장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만 연간 7백만 톤의 가구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중에 단지 5%만 재활용되고 있다.

최근 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 대학 환경연구소는 연방교육연구부의 지원을 받아 프라운호퍼 물질이동 및 물류시스템연구소 등 11개 협력업체와 함께 오래된 가구를 다시 새단장시키는 연구개발계획 'ecomoebel'에 착수했다.

이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오래된 가구를 적절한 수공업자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해 어떤 가구들이 얼마나 운송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연구팀은 도르트문트의 수공업자들을 섭외해 일정한 조직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오래된 가구의 재활용을 위해 가구를 장기간 보관·운송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환경침해가 없는 가구들만을 조직해 이것을 수공업자들에게 보내어 새단장을 시키는 일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수작업된 가구들은 ecomoebel 인증을 받게되며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가구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 공급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래된 가구를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이미지만을 변화시켜 개선하려는 연구계획이 이미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자료출처 : Umweltjournal.de)

□■ 건축재료 재활용의 낙관적 미래

2001년 독일 잘란트(Saaland) 주의 경제는 자동차 산업에 힘입어 플러스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분야를 살펴보면 2003년 공공 건설분야, 특히 지하공사분야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건설경기는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지하공사를 맡고 있는 Fetzer 건축재료 가공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회사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 1993년 분쇄 및 여과를 통한 가공작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골재, 운반, 굴삭업무 뿐만 아니라 건축재료 재활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큰 회사다.

전체 설비의 에너지공급 뿐만 아니라 열 획득에 쓰이는 장치 및 필요에 따라 특수하게 장착되는 수많은 설비 등이 회사 고유의 해결책으로 마련되고 있다. 현재 Fetzer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재료 가공회사들은 재활용된 건설재료(RCL 재료)의 지극히 낮은 판매고와 거대한 양의 건축폐기물로 인한 회사 대지의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활용된 건축재료 사용의 장려책과 함께 재활용 물질을 이용한 제품들의 정직한 감시 및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예를 들어 채사장으로 쓰여진 구덩이를 건설잔여물의 적립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 등은 건축재료 재활용을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재료 재활용제품의 안전성과 경고성, 경제성 등의 연구 및 홍보를 통해 재활용 제품의 인식전환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 Baustoffe Recycling)

□■ 일본 뉴에너지 산업 동향

2003년도 뉴에너지 대상에 쿠보타 수상

뉴에너지 재단이 주관하고, 우수 뉴에너지 기기 및 도입 사례를 표창하는 2003년도 (제8회) 「뉴에너지 대상」에 쿠보타가 선정됐다.

쿠보타는 음식쓰레기와 식품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막형(膜型)메탄발효 시스템」을 개발하

여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쿠보타의 금번 시스템은 독자개발한 「액중막(液中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효통속의 메탄균을 고농도로 농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기존 장치의 결점이었던 대용량의 발효통을 3분의 1이하의 크기로 소형화하고 시스템 전체의 공간 절약화를 추구했다. 또한, 발효를 저해하는 암모니아를 액중막(液中膜)으로 효율적으로 발취하는 방법을 실현시켜 시스템 성능의 안정성도 향상시켰다. 이들의 특성이 식품 제조 업체와 지자체등 수요가의 요구에 부합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자원에너지청 장관상에는 풍력발전 도입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의 절감을 지원한 소프트 「풍력발전 적지선정 지원시스템 “WinPAS”」를 실용화 시킨 CRC 솔루션즈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도입사례 부문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천연가스 코제네레이션(열전병합)시스템인 「삿쵸로역 남구지구지역 열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한 삿쵸로시와 홋카이도 열공급공사가 선정되었다.

기타, 뉴에너지 재단 회장상은, 닛신전기와 칸사이 전력의 「단독 운전 검출 장치」, 시마네현 기업국과 후지 전기 시스템즈의 「초고속 플라이휠 전력 안정화 장치를 병설한 풍력발전 시스템」, 도쿄도와 제이윈드 도쿄의 「도쿄 카제구루마(도쿄임해 풍력발전소)」, 치바시의 「신코(新港) 클린·에너지 센타·수퍼 쓰레기 발전시스템」등 4건이 선정되었다. (자료출처 : KOTRA)

□■ 中, 위험폐기물 처리에 3년간 150억 위엔 투입계획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재정부, 건설부와 공동으로 <전국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국은 향후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을 집중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와 보관시설에 향후 3년간 149.2억 위엔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이 계획에 따라 중국내 종합 위험폐기물 처리센터 31개를 설립하고 매년 위험폐기물 282만 톤

의 처리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종합 폐기물 처리능력을 연 350만 톤씩 늘리는 한편 우선적으로 당해연도 위험폐기물 처리에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누적된 위험폐기물을 소화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 300개를 건설해 하루 일 2,080톤의 처리능력을 높임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수요와 향후 몇 년간의 위생사업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31개 성급 방사성 폐기물창고를 보수, 확장 및 신축하여 보관용량을 1만 3,000평방미터를 새로 늘릴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31개 성급 위험폐기물 등록 교환센터를 건설해 검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적인 위험물 교환 및 응급사고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폐기물의 수집과 보관의 체계화, 운송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처리인원의 확보를 통해 각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운송차, 기술, 소각로, 배기가스 처리, 안전매립, 시스템 배치 등 6개 방면에 대한 기술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험폐기물은 크게 47개로 구분, 600종류로 세분화되고 독성, 부식성, 폭발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1,000만 톤 이상으로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건전지, 형광등에 사용되는 중금속 물질, 병원 및 산업용 방사성 폐기물만 11.53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의료용 폐기물만해도 하루 평균 1,780만 톤에 이르고 있다. (자료출처 : KOTRA)

□■ 南寧市, '배터리 생산자 책임제도' 실시

南寧市에서는 올해부터 폐기 배터리 회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제조사 회수', '생산자 책임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발표한《폐기 배터리의 오염 방지기술 정책》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오염은 주로 한

드폰 배터리, 단추식 배터리, 충전 배터리 등에서 온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5호, 7호 배터리의 생산은 이미 저(低)수은 혹은 무(無)수은 표준에 도달해 국가에서는 집중회수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정책》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제조사 회수' 즉 '생산자 책임제도'를 시행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책은〈충전 배터리와 단추식 배터리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반드시 폐기 배터리를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자료출처 : konetic)

□■ 포스트 가전 리사이클 - 복사기

비즈니스 기계정보시스템 산업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사기 / 복합기(팩스겸용)는 연간 66만대이다.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어 다른 전기제품들과 같이 재자원화 되고 있지만, 사무용 복사기만큼 효율적으로 리사이클되는 제품은 없다.

리코사에서는 전국 각지의 60개의 회수센터를 통해 회수된 복사기를 재생센터나 리사이클센터에서 분해하여 재자원화하는 시설에서, 철, 구조체, 비철, 하네스, 프린트, 전원기판, 액정, 현상제/토너, 플라스틱, 판유리, 모터/환모터/트랜스, 용기류, 형광등/램프, 현상 유닛, 렌즈/미라 등 각 부품별로 분리한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종업원 한명이 한대의 복사기를 20분이면 분해,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 그대로 사용가능한 일부부품은 재생하여 신제품에 사용하고, 남은 부품도 분리하면 재자원화하기 쉬워져서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문업자에게 매각한다.

리사이클사업의 최종목표는 흑자화인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다. 따라서 재생센터에서 신제품과 같은 검사를 받은 재제조제품의 판매대수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관점이다. 또한 중고사무기기회사에서 배출되어 거대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제품을 이곳 재생센터에서 회수하는 것도 관점이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인 기업도 리사이클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어 있으므로

의외의 단기간에 흑자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자료 출처 : 한국자원재생공사, Indust)

□■ peat moss를 이용한 환경기술 개발

〈 New Technology Week, Vol. 18, No.6 〉에서는 peat moss(토탄 이끼)를 이용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기술은 정원의 잡초 제거용이, 수분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sphagnum peat moss가 끈적끈적한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w Technology Week 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군 환경 리더 프로그램(Navy Environmental Leadership Program: NELP)과 Naval Station Mayport에 있는 Aircraft Intermediate Maintenance Detachment(AIMD)는 peat moss를 이용하여 환경오염 물질 제거 실험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캐나다의 Spill-Sorb Canada Inc 회사는 peat moss가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유성 페인트, 잉크와 염색, 동물성 기름, 식물성 오일, 혈액 등을 흡수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고 한다. 또한 peat moss는 산업 폐기물, 폐수처리 시 나오는 물질, 중금속, 조류 및 오염된 산업물질, 광산 쓰레기를 여과할 수 있다고 NELP가 밝혔으며, peat moss는 흡수된 오염 물질을 방출하거나 배출하지 않아 깨끗하게 처리하기 용이하며 Sphagnum peat moss는 사용하고 제거하기 매우 쉽다고 설명하고 엔진 오일은 바닥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흡수한다고 보도했다.

또 NELP와 AIMD에 따르면 반 피트 정도 두께의 peat moss를 뿌리고 앞뒤로 갈퀴질을 하면 오염물질이 모두 흡수되고, peat moss를 거두어 처리장소에 가져가면 되고, 그러면 바다 위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땅위에 뿌리는 양의 15% 정도를 더 뿌리면 된다고 보도했다.

□■ 중국, 식물을 이용한 오염도양 재생회복 기술 중대한 성과 이룩

중국 과학자들이 일종 특수식물을 이용해 토양가운데 존재하는 고농도 중금속을 흡수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에 따르면 陳東斌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 연구원이 주최하는 <중금속 토양의 식물회복기술 과제>는 이미 863계획의 지지를 얻었으며, 동 기술의 중금속 연구대상은 비소, 동, 아연이라 한다.

식물회복 기술이란 특정 식물을 골라 재배하여 토양가운데 존재하는 중금속 오염물질을 흡수한 뒤, 다시 중금속 원소를 회수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은 중금속 오염을 받은 경작지면적이 전국 경작지면적의 20% 정도 차지, 매년 이로 인해 1,000만 톤의 알곡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100억 위안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식물회복기술 시장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소조는 모두 16개 항목의 특허를 신청, 동 항목에 대한 연구는 아직 2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동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중금속원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가 바로 향후 중점 연구과제라 지적했다. (자료출처 : 2004.02.19新華社,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타진이 필요하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상용화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 쓰레기 소각 (Efw, Energy form Waste) 이나 쓰레기로부터 에너지 생산 (WtE, Waste to Energy) 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는 소각에 대해서 주의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Gujarat 주 (state) 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적절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GEDA (Gujarat Energy Development Agency) 는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Gujarat는 수력에 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대부분 의지하고 있어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다.

Gujarat에서 부적당한 산림표면, 심각한 토양 침식

및 분해, 황무지 증가, 물부족, 염분의 토양 침투 등이 부정적인 문제라면 연간 300일 내내 비치는 태양, 해안을 따라 부는 적당한 바람, 풍부한 소 개체 수, 황무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에너지 작물의 범위, 에너지 회수 가능한 풍부한 쓰레기 등이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즉,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쓰레기, 바람, 태양 빛 들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타진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출처:쓰시협)

□■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 건설항목의 환경평가 심사 강화 요구

최근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발표한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 건설항목의 환경영향 평가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향후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 건설항목의 환경영향을 심사할 때 반드시 관련 표준, 지침서 등 기술문건에 따라 부지선택을 해야 하고 음용 수원보호구(농촌 집중 음용 수원지 포함), 인구밀집구역 등 환경 민감 지역을 피해야 하며 오염방어 거리를 설치해야 한다.

<통지>는 계획내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의 분포, 건설내용, 규모는 반드시 <전국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처리 계획항목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밝힌 동시, 상기 3가지 처리공정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의 심사권한을 적당히 집중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외 <통지>는 상기 3가지 처리공정 건설항목 환경영향 평가에 종사하는 회사는 반드시 전문 업무 자격을 구비, 환경평가항목 책임자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5년 전까지 전국 범위에서 위험폐기물, 의료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을 몇 개 단계로 나누어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자료출처:2004년 3월 2일 新華網, 중국환경시장동향 제89호)